

DuPont, 상하이 R&D센터 개설

2005년부터 아시아·태평양 시장 공략 ... 스위스·일본에도 계획

미국의 최대 화학기업인 DuPont이 11월5일 아시아-태평양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R&D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상하이 R&D센터는 DuPont이 스위스 및 일본에 이어 미국지역 외에 설립하는 3번째 센터가 될 전망이다.

총 15000만달러가 투입되는 R&D센터는 2005년 초 오픈 예정으로 200여명의 연구진이 배치되며 실험실과 사무실, 그리고 응용 및 개발을 위한 High-Ceiling Process Bay로 구성된다.

DuPont은 현재 75개에 달하는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가 미국 외 11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.

DuPont의 최고기술경영자(CTO)에 따르면, DuPont은 중국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최근 아시아-태평양 지역에서 DuPont의 기술과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하이 R&D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으며, 상하이 R&D 센터는 응용분야 개발, 지식교류, 기술협력 및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DuPont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더 넓게는 아시아-태평양 전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중국은 상하이 R&D센터를 통해 대학 및 과학기술원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. DuPont은 미국에서는 이미 MIT(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)와 DuPont-MIT Alliance를 결성하고 있다. DuPont은 전자에서부터 농업에 걸친 세계 전체 화학시장에 연평균 12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 5100명 이상의 연구진 및 엔지니어를 포진하고 있다.

DuPont은 1980년대 중반 중국 시장에 진출해 1989년 Shenzhen에 100% 자회사인 DuPont China Holdings을 설립했고 현재 중국에서 23개의 100% 자회사 또는 합작기업을 운영하고 있다.

현재까지 중국 투자액은 총 7억달러에 달하며 농업, 식료품, 영양제, 전자, 화학제품, 직물 및 자동차 등 여러 사업 분야에 진출해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. <김수진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1/06>